

쓰보야 야치문(도자기) 거리란?  
 류큐 석회암이 깔려 있는 약 400m의 일반통행 길이며, 길 양쪽에는 도자기 판매점과 공방, 찻집 등이 모여 있습니다. "야치문"이란 오키나와 말로 "도자기"입니다. 오랜 전통을 계승한 "야치문"은 오키나와 사람들의 생활속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. 요즘에는 오키나와 여행의 기념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.

**와쿠타가마 (湧田窯) , 나시누메 (北の宮)**  
 1986년에 현청 청사의 건설 공사 중에 발굴된 가마터가 전시 보존되고 있습니다. 와쿠타가마 바로 옆에 있는 "나시누메"(北の宮) 는 쓰보야에 있는 참배소 중 하나입니다.

**이시마치 거리**  
 담쟁이덩굴로 덮힌 오랜 돌담이 남아 있는 골목이며 옛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. 사진 촬영을 추천합니다!

**아라카키 주택(아가리누 가마)**  
 아라카키 주택(新垣家住宅)은 쓰보야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남아 있는 귀중한 민가로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현재는 수복 공사 때문에 외관만 견학 가능합니다. 아가리누 가마 (東又窯) 는 경사지에 만들어진 가마이며 아라카키 주택 내에 있습니다.

**아가리누카**  
 쓰보야에 있는 공동 우물 중 하나이며 음료수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. 수도가 정비되면서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지만 펌프를 저으면 지금도 물이 나옵니다. (음료 불가)

**훼누가마 (南又窯)**  
 류큐 왕부에서 배정된(윗분에게 하사 받음) 가마이며 경사지를 이용해 만들어졌습니다. 주로 술독과 물독, 납골단지 등을 구웠습니다. 주변 돌담을 포함해 오키나와현 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

**납골단지점**  
 "즈시가메"(厨子甕)라고 불리는 오키나와 전통적인 납골단지 전문점입니다.

**나하시립 쓰보야 도자기박물관**  
 오키나와 도자기인 "쓰보야야키"의 역사와 제조 기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  
 개관시간: 10:00~18:00 (월요일 휴관)  
 입장료: 어른 350엔, 학생 무료

**쓰보야 우후 시사 (壺屋うふシーサー)**  
 류큐 왕국 시대부터 300년 이상 이어지는 쓰보야야키의 거대한 시사(사자)입니다. 쓰보야 도공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마을의 상징으로 2013년에 설치되었습니다. "우후"라는 말은 오키나와 말로 "크다"라는 뜻입니다. 마을의 수호신으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

쓰보야 야치문 거리

